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만수받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아주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3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만수받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아주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

만수받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만수받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만수받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만수받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만수받이

만수받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현대 국어 ‘만수받이’는 20세기에 처음 등장해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만수받이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만수받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만수받이

출처 1908 귀의성 하:42

용례 01

문헌 용례

얼골에, 연지를, 뒤집어씨흔드시, ᄉᆡ빨ᄀᆡ지더니, 옹송망송ᄒᆞ며, 최가의, 만수바지를 ᄒᆞᄂᆞᆫᄃᆡ.

현대어 풀이

얼굴에 연지를 뒤집어 씌운 듯이 새빨개지더니 옹송망송하며 최가의 만수받이를 하는데.

출처 1911 모란병 53

용례 02

문헌 용례

마치 박슈가 원을 가셔 만수밧이ᄒᆞ듯 관속을 부르드라더니.

현대어 풀이

마치 박수가 원을 가서 만수받이 하듯 관속을 부르더라 하더니.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3

문헌 용례

≪만수-받이≫ 名 -바지 名 성가시게 굴어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즐겁게 응대하는 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만수받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만수받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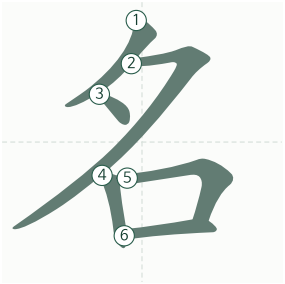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名

뜻·음 이름 명

총 6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名/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